

조선 후기 왕실용 소형 백자 명기(明器)의 특징과 사용 배경*

장 지 영**

목 차

- I. 머리말
- II. 광주(廣州) 관요지(官窯址) 출토 소형 백자 명기의
특징
 - 1. 소형 백자 명기가 출토된 광주 관요
 - 2. 소형 백자 명기의 기종 구분과 생산품의 특징
- III. 왕실 무덤 출토 소형 백자 명기의 특징과 등장
배경
 - 1. 왕실 무덤 출토 소형 백자 명기의 특징
 - 2. 18세기 이후 왕실용 소형 백자 명기의 등장 배경
- IV. 맺음말

* 본 논문은 전국역사학대회 미술사부에서 발표한 「조선시대 도자 명기의 이원적 사용 양상과 분화 배경」, 『제66회 전국역사학대회 역사 속의 인구변동』, 전국역사학회협의회, 2023의 내용과, 경기도자박물관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조선시대 왕실 무덤 출토 광주(廣州) 백자-소형 백자 명기(明器)를 중심으로-」 『제11회 경기도자학술세미나 발표 자료집-조선 왕실에서의 광주 백자』, 경기도자박물관, 2024의 내용을 정리하여 투고함.

**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ccyl203@kookmin.ac.kr

투고일: 2025. 05. 15. 심사완료일: 2025. 06. 26. 게재확정일: 2025. 06. 30.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5.48..83>

국문초록 | 본 연구는 18세기 이후 왕실에서 사용된 명기를 주목하여 왕실용 백자 명기의 특징을 살펴본 후, 조선 후·말기에 증가한 왕실용 백자 명기의 사용 배경을 유교 예제의 실천 방식의 변화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본문에서는 먼저, 왕실용 백자 명기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광주(廣州) 관요지에서 출토된 소형 백자 명기를 조사한 뒤, 전체 생산 시기와 시기에 따른 제작상의 특징 변화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관요에서 생산된 소형 백자 명기는 늦어도 1530년경, 제작되어 19세기까지 지속되었으며, 『하재일기(荷齋日記)』를 통해 흉례에 사용될 백자 명기가 관요의 민영화 이후인 20세기 초까지도 분원을 통해 주문 생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산된 소형 백자 명기는 시기에 따라 조형적 변화를 나타내는데, 특히 굽의 형태와 번조반침에서 특정한 변화 양상을 찾아볼 수 있었다. 즉, 1530년경부터 제작된 소형의 백자 명기는 정연한 형태로 가는모래를 받쳐 구운 양질의 기물이 다수를 이루었으나, 17세기 중반 이후부터 조질의 기물로 변화하여 의도적인 조악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18세기에 들어 다시 변화하는데, 주로 오목굽에 가는모래를 받쳐 구운 양질의 기물이 제작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사용계층의 변화를 함의한 것이라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관요 생산품의 주요 소비지 중 하나인 왕실 무덤 출토품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왕실용 소형 백자 명기는 소비 시기와 조형적 특징에서 관요와의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그간 소형 백자 명기의 사용이 17세기에 급감하여 18세기를 전후한 시점에 사라졌다고 파악해 온 기존 연구와 다르게 18세기 중반 이후 왕실을 중심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하였다.

마지막 본문에서는 이렇게 18세기 이후 왕실을 중심으로 소비된 소형 백자 명기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고자 유교 예제의 실천 방식의 변화와 수용 관점을 주목하였다. 즉, 17세기 후반 서인(西人)이 정국을 주도하는 가운데 모든 예제는 주자(朱子)의 『가례(家禮)』를 기준으로 삼았고, 이를 왕실에도 적용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왕실에서는 사대부와 구별된 고례(古禮)의 실천이 강조된 것이라 판단된다. 이에 따라 조선 후·말기 명기의 사용과 같은 방식으로 표면화되면서 18세기 이후 관요에서 생산된 소형 백자 명기는 왕과 그 측근의 무덤에 집중적으로 소비되었던 것이라 볼 수 있었다.

핵심어 | 조선시대, 왕실 의례, 백자 명기, 명기(明器), 부장 도자, 관요(官窯)

I. 머리말

명기(明器)는 조선시대 사용된 소형의 의례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곤 한다. 그러나 명기에 관한 의례를 살펴보면 부장 제도가 성립되었던 한나라 때부터 인(仁)을 바탕으로 예(禮)를 갖추어 무덤에 부장하는 모든 기물을神明(神明)의 것이라 하여 ‘명기’라 불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만 생전에 사용했던 것과는 구분되도록 형태는 동일하나 재질이나 상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볼 수 있다.¹⁾

조선에서는 건국 초기부터 한당(漢唐)의 의례와 송명대(宋明代) 의례를 참고하여 명기 부장에 관한 기초 규범을 마련하였다.²⁾ 그러나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서 명기된 명기의 크기는 실제 사용하지 않는 주척(周尺)을 기준으로 하여 세종대 확립되었던 황중척(黃鍾尺)이나 기타 영조척(營造尺), 조례기척(造禮器尺)과 같은 다양한 척들이 임의로 사용됨에 따라 크기가 제각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5~16세기에 조성된 무덤 출토 호나 병을 보면, 대부분 실용기 보다 약 1/3~3/4 정도 작은 것들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명기의 크기는 16세기 중반을 전후하여 실용기의 1/4 크기로 작게 제작되어 빠르게 확산하였으며, 17세기 이후 소형 명기의 사용이 일반화된 것으로 파악된다.³⁾

1) 『禮記』, 「檀弓上」. '죽은 사람을 완전히 죽은 것처럼 대하면 애정이 부족하여 안 되고, 살아 있는 것처럼 대하면 지혜가 부족하여 안 된다. 고로, 대나무는 실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와기는 광택을 내지 않고, 나무는 조각할 수 없게 한다. 거문고와 비파【琴瑟】는 넣지만 고르지 못하게 하고, 우笙(笙)은 갖춰져 있지만 음정이 맞지 않으며, 종과 경(鐘磬)은 있으나 틀과 기둥은 없게 한다. 이는神明(神明)의 것으로 명기라 부른다.' (장지영, 「명기(明器)의 개념과 연원 고찰 -중국 삼대(三代)에서 송대(宋代)를 중심으로-」, 『한국학논총』 vol.60, 2023. 재인용.)

2) 장지영, 「조선시대 도자 명기의 이원적 사용 양상과 분화 배경」, 『제66회 전국역사학대회 역사 속의 인구변동』 전국역사학대회협의회, 2023.

3) 장지영, 「조선시대 부장(副葬) 도자(陶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그간 조선시대 명기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민간 분묘를 대상으로 소형의 기물만을 명기로 인식한 경향을 나타내며, 이를 16세기에 등장하여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 소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⁴⁾ 이후, 2020년을 즈음하여 18세기 후반 왕실에서 사용한 백자 명기를 주목하면서 왕실용 소형 백자 명기의 출토 현황과 신분적 특수성에 대해 다루기 시작하였다.⁵⁾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18세기 이후 민간에서 사라진 명기의 사용이 왕실에서는 오히려 왕성해지고 있는 이래적 현상에 대해 ‘신분적 구분을 위한 의례기적 성격’이라는 해석에 머물러 있다. 만일, ‘명기의 부장’이라는 행위 자체가 신분적 특수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면, 무엇보다 제도적 제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왕족을 제외하고 명기의 부장을 금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 후 말기에 사용된 전례서(典禮書)인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과 『춘관통고(春官通考)』에는 전기의 예제를 기초로 왕 이하 대부·사·서인(大夫·士·庶人)에게는 기종의 구성과 수량에만 차이가 있을 뿐, 명기 사용 자체를 제한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문, 2023, 194-199쪽; 「조선시대 도자 명기의 이원적 사용 양상과 분화 배경」, 『제66회 전국역사학대회 역사 속의 인구변동』 전국역사학대회 미술사부 발표문, 전국역사학회협의회, 2023.10.

- 4) 이지현, 「朝鮮時代 明器의 연구 : 白磁明器를 中心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권소현, 「尹思愼 부부 합장묘 출토 16세기 후반 백자묘지와 명기일괄」, 『미술자료』 No.76, 국립중앙박물관, 2007; 장남원, 「조선시대 喪葬공예품의 의미와 구성: 서울경기 지역 民墓埋納品을 중심으로」, 『미술사연구』 24, 2010; 장지영, 「朝鮮前期 漢陽 西郊地域 墳墓出土 陶磁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김현우, 「조선시대 회곽묘의 편년과 변천 양상」, 『韓國考古學報』 第85輯, 2012; 장지영, 「조선전기 한양 서교지역의 분묘 출토 陶磁 연구 -진관동 분묘군 유적을 중심으로-」, 2013.
- 5) 김래헌, 「朝鮮時代 陶磁 明器 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최지선, 「朝鮮時代 白磁 明器 研究」,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2; 장지영, 앞의 학위논문, 2023.

이와 같이 조선 후기에도 전기와 동일한 의례가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대부들은 부장하지 않았던 명기를 왕실에서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18세기에 들어 왕실과 사대부가 각기 다른 관점에서 의례를 수용하고 실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18세기 이후 왕실에서 사용된 명기가 연대별로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생산지 출토품 및 『하재일기(荷齋日記)』와 같은 생산자 기록을 소비지 출토품과 비교 분석하여 기형의 특징 변화와 소비 기종의 조합 양상 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후, 조선 후·말기에 증가한 왕실용 백자 명기의 특징과 그 사용 배경을 유교 예제의 실천 방식 변화와 수용 여부의 관점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광주(廣州) 관요지(官窯址) 출토 소형 백자 명기의 특징

본 장에서는 소형의 백자 명기가 출토된 광주 관요의 운영연대를 통해 소형 백자 명기의 제작 시기를 파악해 보고, 출토품의 기종별 기형 변화와 조형상의 특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1. 소형 백자 명기가 출토된 광주 관요

소형 백자 명기가 출토된 광주 관요는 우산리 9호, 번천리 9호, 무갑리 10호 1호 폐기장, 선동리 2호, 송정동 5호, 송정동 1호 1지구와 2지구, 유사리 8호 6차 발굴지와 1차 발굴지, 유사리 5호, 신대리 12호, 궁평리 1,2호, 분원리 A지구, 분원리 B지구 등이 있다.⁶⁾ 각 가마의 발굴조사 결과 및 관련 연구 성과에 따라 가마의 운영연대를 살펴보면,⁷⁾ 우산리 9호는 1530년대

후반에서 1540년대 초반에 운영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소형 백자 명기가 출토된 관요 가운데 가장 이른 예에 해당한다. 이후 1552년부터 1558년까지 운영된 번천리 9호에서 생산이 이어지며,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중반경에는 목현리 5호 가마에서 산마(散馬) 명기와 함께 소형의 백자 명기들이 출토되었으며, 16세기 후반, 무갑리 10호 1호 폐기장(1560년~1590년 전후)에서 소형의 명기의 출토가 확인되었다. 17세기에는 제작량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선동리 2호(1640년~1648년), 송정동(1649년~1654년) 및 유사리 8호(1657년~1659년), 그리고 유사리 5호(1660년~1663년) 가마에서 소형 백자 명기가 출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전반이 되면 제작지의 수와 출토량이 급감하며 신대리 12호(1673년~1676년)와 궁평리 1, 2호(1684년~1702년)에서만 백자 명기가 소량 출토된 것을 볼 수 있다. 이후 소형 명기의 생산은 잠시 중단되었다가 18세기 중반, 분원리 A지구(1752년~1883년)와 분원리 B지구(1752년~1883년) 가마에서 다시 제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⁸⁾














-
- 6)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광주우산리9호조선백자요지 발굴조사보고」, 1993; 「광주 번천리 9호 조선백자요지」, 2007; 국립중앙박물관·경기도박물관, 「경기도광주중앙 관요 요지지표조사보고서」, 2000; 경기도자박물관, 「광주 송정동56호 백자가마터」, 2008; 「경기도작박물관 학술총서 제16책-광주 조선백자요지(사적314호) 4차 발굴조사보고서」, 2019; 「경기도작박물관 학술총서 제17책-광주 조선백자요지(사적314호) 3차 발굴조사보고서」, 2019; 「경기도작박물관 학술총서 제19책-광주 조선백자요지(사적314호) 6차 발굴조사보고서」, 2019; 「경기도작박물관 학술총서 제20책-광주 조선백자요지(사적314호) 1차 발굴조사보고서」, 2020; 서경문화재단연구원, 「유적조사보고 제17책-광주 무갑리 10호 도요지 내 유적」, 2015.
- 7) 김경중, 「16세기 중·후반 조선 관요 운영 시기 및 제작 양상 연구-가마터 출토 명문백자를 중심으로-」, 『야외고』 제15호, 한국문화재단조사연구기관원회, 2012, pp.254-256; 서경문화재단연구원, 앞의 보고서, 2015, 110-112쪽;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조선의 마지막 관요 광주 분원리 백자요지」, 2006.
- 8)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광주우산리9호조선백자요지 발굴조사보고」, 1993; 「광주 번천리 9호 조선백자요지」, 2007; 국립중앙박물관·경기도박물관, 「경기도광주중앙 관요 요지지표조사보고서」, 2000; 경기도자박물관, 「광주 송정동56호 백자가마터」,

2. 소형 백자 명기의 기종 구분과 생산품의 특징

각 관요에서 출토된 소형 백자 명기를 전례(典禮) 도설(圖說)을 바탕으로 기종을 분류해보면, ‘앵(甕), 무(甌), 개(蓋), 주병(酒瓶), 잔(盞), 잔탁(盞托), 시점(匙櫟), 찬점(饌櫟), 소채포해점(蔬菜脯醢櫟)’ 등이 확인된다.

이중 저장기에 해당하는 앵과 무는 필자의 기존 연구에 따라 구연의 형태로 다음과 같이 기종을 구분할 수 있다(표 1).

【표 1】 앵·무·소 의례 도설

	『세종실록』 「오례」	『국조오례의』 서례	『국조상례보편』	『춘관통고』 원의명기도설	『춘관통고』 보편명기도설
앵(甕)			×		×
무(甌)					
소(筩)					

2008: 「경기도작박물관 학술총서 제16책-광주 조선백자요지(사적314호) 4차 발굴조사보고서」, 2019: 「경기도작박물관 학술총서 제17책-광주 조선백자요지(사적314호) 3차 발굴조사보고서」, 2019: 「경기도작박물관 학술총서 제19책-광주 조선백자요지(사적314호) 6차 발굴조사보고서」, 2019: 「경기도작박물관 학술총서 제20책-광주 조선백자요지(사적314호) 1차 발굴조사보고서」, 2020: 서경문화재연구원, 「유적조사보고 제17책-광주 무갑리 10호 도요지 내 유적」, 2015.

앵(甕)은 상대적으로 경부가 높고 구경이 좁은 형태를 띠며, 무(甗)는 구경이 넓고 구연이 외반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죽기로 제작되도록 한 소(筩)의 경우는 무와 동일한 형태와 규격을 나타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⁹⁾ 사마광(司馬光, 1019~1086)의 『서의(書儀)』에서 『의례(儀禮)』를 해석함에 있어 소를 작은 옹기에 오곡(五穀)을 저장하도록 하였으며,¹⁰⁾ 명대(明代) 풍선(馮善, 미상)이 편찬한 『가례집설(家禮集說)』에도 소는 도기(陶器)로 작게 만들어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¹⁾ 이에 따라 실제 출토된 도자 명기 가운데 곡물이 담겨있는 도기호의 경우는 소로 분류하고자 한다.

기타 식반류(食盤類)의 경우, 9점을 부장하도록 한 찬접과 12점을 부장하도록 한 소채포해접은 동일한 형태의 접시 가운데 도설의 형태에 따라 운두가 얇고 내저원각이 큰 것을 찬접으로, 내저 원각이 좁거나 기벽이 완만한 곡면을 이룬 것을 소채포해접으로 분류하였다. 단일 부장으로 다른 접시들과 구별되며, 전기에는 넓은 구연에 완만한 내저면을, 후기에는 절요의 형태를 나타내는 경우를 시접으로 분류하였다. 그 밖에 운두가 깊고 기고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갱접, 이와 유사하나 크기가 작은 것을 잔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운두가 깊고 내저면이 편평한 접시류의 경우는 공반출토된 잔과 내저원각의 크기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접과 잔대로 구분하였다(표 2).

9) 『世宗實錄』 「五禮」, 凶禮, 明器; 『國朝五禮序例』 卷之五, 凶禮; 『春官通考』 卷86, 凶禮, 原儀明器圖說. ‘筩, 竹器有甗’; 『國朝喪禮補編』 圖說, 發引, 明器; 『春官通考』 卷86, 凶禮, 補編明器圖說. ‘筩, 用海竹, 編結’.

10) 司馬光, 『書儀』, 儀禮, 注. ‘사마온공이 말하였다. “지금은 작은 옹기로 오곡을 저장하는데, 각각 5승이 괜찮다.”’

11) 馮善, 『家禮集說』, 治葬, 苞筩甕. ‘지금 세상에서는 또 단지 다섯 개의 작은 와관(瓦罐)을 쓰는데, 각각 몇 홉씩을 담을 수가 있다.’ (장지영, 앞의 학위논문, 2023, 쪽. 제인용)

【표 2】 찬접·소채포해접·갱접·잔·시접 의례 도설

	『세종실록』 「오례」	『국조오례의』 서례	『국조상례보편』	『춘관통고』 원의명기도설	『춘관통고』 보편명기도설
찬접(饌楪)		x	제외	x	x
소채포해접(蔬菜脯醢楪)		x	제외	x	x
시접(匙楪)		x		x	
갱접(羹楪)		x	x	x	x
잔(盞) · 잔대(盞臺)		x	제외	x	x
적접(炙楪)		x	제외	x	x

한편, 출토품 가운데 기벽이 S자형을 띠며 외반된 구연을 가진 기물의 경우는 갱접과 잔의 경계를 구분하기에 모호함이 있어 미상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민간 출토품의 조사를 통해 보다 면밀한 검토를 시행하도록 하겠다.






















이상의 기준에 따라 출토품의 기종을 분류하여 생산지별 제작상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표 3).¹²⁾ 다만, 호류의 경우는 구연이 파손되어 기종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동체 하단부의

















경사도에 따라 직립에 가까운 것을 앵으로, 사선에 가까운 것을 무로 구분하며, 도기질의 호의 경우 소로 분류하고자 한다.

【표 3】 광주 관요지 출토 소형 백자 명기의 기종별 제작상의 특징

기종	도면	출토 요지	운영연대	굽형태	번조받침
앵/무		변천리9호	1552-1558	안굽	가는모래
				안굽	가는모래
				안굽	굵은모래
		송정동5호	1649-1654	안굽	가는모래
		송정동1호 추정 (시굴1지구)	17중반	안굽	굵은모래
무		우산리9호	1530후-1540초	-	-
		선동리2호	1640-1649	-	-
		분원리 B지구	1752-1883	오목굽	가는모래
		변천리9호	1552-1558	-	-
				-	-
소		변천리9호	1552-1558	역삼각굽	가는모래
		궁평리1,2호	1684전후	수직굽	-

12) 장지영, 위의 학위논문, 2023, 122-127쪽. 재인용.

		궁평리1,2호	1684전후	오목굽	흙물끓은 모래
개		번천리9호	1552-1558	-	-
				-	-
				-	-
				-	-
		상림리3호	1629-1640	-	가는모래
		선동리2호	1640-1649	-	-
				-	-
				-	-
		유사리8호(6차)	1657-1659	-	끓은모래
				-	끓은모래
		송정동5호	1649-1654	-	
		신대리12호	1673-1676	-	끓은모래
				-	끓은모래
				-	흙물모래
		분원리 A지구	1752-1883	-	가는모래
		분원리 B지구	1752-1883	평저	가는모래
		무갑리10호 1호폐기장	1560-1590전후	-	가는모래
주병		번천리9호	1552-1558	역삼각굽	-
				역삼각굽	-
				-	초벌편

				역삼각굽	-
		우산리9호	1530후-1540초	오목굽	모래
		송정동1호 추정 (시굴 1지구)	17중반	평-오목굽	가는모래
		송정동1호 추정 (시굴2지구)	17중반	평굽	가는모래
		유사리8호(6차)	1657-1659	오목굽	가는모래
시접		송정동5호	1649-1654	평굽	모래
잔탁		선동리2호	1640-1649	오목굽	-
찬접		유사리8호(1차)	1660년대	오목굽	가는모래
		유사리8호(1차)	1660년대	평굽	가는모래
		분원리 B지구	1752-1883	오목굽	가는모래
적접		송정동5호	1649-1654	평굽	-
		유사리8호(1차)	1660년대	오목굽	초별편
잔/ 꺽접		선동리2호	1640-1649	오목굽	
		유사리8호(6차)	1657-1659	오목굽	가는모래
				오목굽	가는모래
		유사리8호(1차)	1660년대	평굽	가는모래

		유사리5호	1660-1663	평굽	가는모래
미상		유사리8호(1차)	1660년대	평굽	초별편
		분원리 B지구	1752-1883	평-오목굽	가는모래
		유사리8호(6차)	1657-1659	오목굽	가는모래
		유사리8호(1차)	1660년대	역삼각굽	가는모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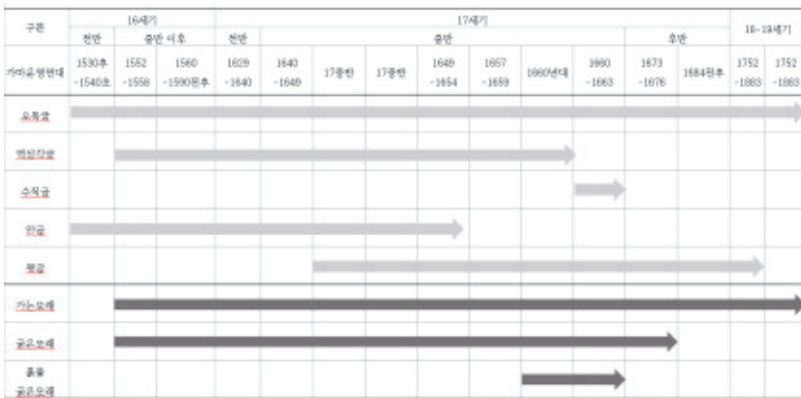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제작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굽은 오목굽, 역삼각형굽, 수직굽, 안굽, 평굽이 확인된다. 이중 오목굽은 굽을 깎는 과정이 생략된 상태로 조질의 백자 명기는 대부분 이와 같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양질의 경우는 오목굽의 상태에서 한 번 더 칼을 대어 역삼각형을 나타내도록 하였는데 주로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중반 이전까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제작된 양질의 명기들은 형식화된 방식으로 굽 외면을 수직 방향으로 깎아낸 형태를 보인다.

한편, 앵 혹은 무로 분류할 수 있는 입호의 경우, 굽 외면을 그대로 두고 굽 안바닥면과 굽 내측면을 정연하게 다듬어 편평한 바닥면과 역삼각형굽을 만든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소형 백자 명기가 사용되기 시작한 16세기 전반부터 17세기 중반 이전까지 지속되다가 17세기 중반 이후부터 바닥면을 의도적으로 다듬지 않은 채 그대로 번조한 평저로 전환되며, 18~19세기에는 이전에 비해 정연하게 마감된 평저의 형태를 나타낸다.

번조받침의 경우, 가는모래받침, 굵은모래받침, 흙물모래받침이 확인되는 가운데, 가는모래받침은 16세기 중반 이후부터 19세기까지, 굵은모래받침은 16세기 중반 이후부터 17세기 후반경까지, 흙물굵은모래의 사용은 17세기 후반 이후부터 확인되기 시작한다. 이를 통해 소형 백자 명기는 16세기 중반 이후, 양질 백자에는 가는모래를 받쳐 번조하였고, 조질의 백자는

굵은모래를 사용하다가, 17세기 후반부터 굵은 모래가 포함된 흙물받침의 사용으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굵과 받침의 종류에 따라 사용 시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표 4).

【표 4】 광주 관요 출토 소형 백자 명기의 굵과 받침의 사용 양상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광주 관요에서는 적어도 1530년경부터 소형의 백자 명기가 제작되기 시작했으며 초기 작품은 정연한 형태로 가는모래를 받쳐 구운 양질의 기물이 다수를 이루었으나, 17세기 중반 이후부터 조질의 기물이 주를 이루는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민간에서의 소비가 증가하는 시점과 일치한다.

한편, 18세기에 들어서면 평굽이나 정연하게 마감된 오목굽에 가는모래를 받쳐 구운 양질의 기물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모두 분원리 생산품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소형 백자 명기의 생산이 급감했다는 사실은 소비층의 급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생산품의 질적 수준이 17세기에 비해 향상되었다는 점은 소비층의 성격 변화를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Ⅲ. 왕실 무덤 출토 소형 백자 명기의 특징과 등장 배경

본 장에서는 왕실 무덤에서 출토된 소형 백자 명기의 출토 현황을 바탕으로 부장품의 기종별 특징을 살펴 생산지와의 관련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단, 부장품 가운데 소형으로 제작되었으나 문양이 있거나 화장(化粧) 혹은 서예에 사용된 기물 등은 전례서의 기준에 따라 부장 명기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복완물(服玩物)로 분류하여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1. 왕실 무덤 출토 소형 백자 명기의 특징

1) 소형 백자 명기의 출토 현황

현재까지 소형 백자 명기가 출토된 왕실 무덤은 왕의 무덤인 정조의 건릉(正祖 健陵, 1752~1800)과 왕세자인 의소세손(懿昭世孫, 1661~1722)의 의령원(懿寧園)이 있으며, 내명부에 속한 인물로는 후궁인 영빈이씨(映嬪李氏, 1696~1764)와 원빈홍씨(원빈홍씨(元嬪洪氏, ?~1779), 그리고 외명부에 속하는 화협옹주(和協翁主, 1733~1752)와 청연공주(淸衍公主, 1754~1821), 정휘옹주(貞徽翁主, 1593~1653)와 부군인 전창군 유정량(全昌君 柳廷亮, 1591~1663)의 합장묘가 있다. 그 밖에 왕실의 종친으로는 광천군(廣川君, 1510~1588)과 태안군(泰安君, 1520~1592)의 무덤이 있다. 이들 무덤에서 출토된 소형 백자 명기를 기종 분류하여 각각의 출토 수량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표 5).¹³⁾

13) 장지영, 위의 학위논문, 2023; 「조선시대 도자(陶磁) 명기(明器) 기종 연구-왕실 능원묘(陵園墓) 출토품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46,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24. 기종의 분류는 의 내용은 상기 연구를 기초로 하나, 광천군묘 출토 기종 가운데 겹접으로 분류한 4점의 발류는 의례서를 기준으로 부장 의례와의 차이

【표 5】 왕실 능원묘 출토 소형 백자 명기의 기종 분류 및 출토 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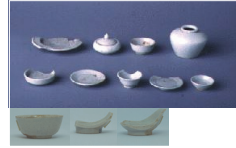
	광천 군	태안 군	전창군 (정회)	의소 세손	화협 옹주	영빈 이씨	원빈 홍씨	문효 세자	정조	청연 공주
	1510 -1588	1520 -1592	1591 -1663	1661 -1722	1733 -1752	1696 -1764	1766 -1779	1782 -1786	1752 -1800	1754 -1821
甕		蓋1	2조	1	1조	1조			3조	3조
甌	1	蓋1	1조 蓋2		1조	1조			3조	1조/1
筍			1조					1		
酒尊			1							
瓦甌				1						
瓦鼎									1	
瓦釜				1					1	
酒瓶			1				1		1	
爵						1			1	
盞	1조	1조	1조			1조	1조		3조	
簋				1			1		1	
簋				1		1	1		1	
磬							1		1	
壺									1	
香爐	1조	1조	1조			1조	1조		1조	
飯鉢	1조		1조			1조	1조		1조	
匙櫈	1		1			1			1	
羹櫈	1조	1	5			1				
饌櫈		3	1조			5				
炙櫈		1	1			1				
蔬菜脯醢 櫈		1	4			4				

가 있어 재분류를 시행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기고가 상대적으로 낮고 외반된 두 개의 발은 뚜껑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해볼 수 있으므로 반발과 갱점으로 재분류하고자 한다. *숫자 표기는 날개를 기준으로 뚜껑과 함께 출토된 경우는 '1조'로 표기하였으며 뚜껑만이 확인된 경우는 '蓋'를 함께 명기하였다.

미상			1조							
합계	6종 10점	8종 12점	14종 35점	5종 5점	2종 4점	13종 25점	7종 10점	1종 1점	14종 28점	2종 9점

이를 통해 명기가 출토된 왕족의 무덤 중 사대부 계층에 속하는 종친 계열(부마 포함)의 무덤에서는 16세기 말경, 앵, 무, 잔, 향로, 반발, 접시, 갹접의 조합으로 부장이 이루어졌으며, 17세기 중반 준, 병, 찬접, 적접, 소채포해접 등 종류와 수량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그림 1-3). 18세기에 들어서면 왕과 왕세손, 비빈과 옹주들의 무덤에서 양질의 명기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대체로 앵과 무가 중심을 이루는 가운데 잔과 향로, 반발, 접시와 같은 기종들이 추가적인 조합을 이루고 있다. 부장 수량의 경우, 왕실 내부에서도 신분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는 왕과 왕세자, 내외명부의 여인들과 기타 종친들의 신분에 따라 부장 명기의 수량을 달리하도록 한 의례에 따른 결과로 파악된다(그림 4-5).¹⁴⁾

이상의 조사를 통해 왕실에서는 16세기 후반부터 19세기까지 소형 백자 명기가 꾸준히 사용되었으며, 이는 20세기



【그림 1】 광천군묘 출토품



【그림 2】 정휘옹주 부군 전창군묘 출토품



【그림 3】 정휘옹주묘 출토품

14) 『國朝喪禮補編』과 『國朝喪禮補編序例』 ‘도설’에는 왕실 내부의 위계에 따라 부장품의 수량을 달리하여 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흥례에는 32종 56점, 소상에는 28종 45점, 내상에는 26종 40점의 명기를 부장하도록 하였다. (장지영, 앞의 학위논문, 2023, 70-78쪽. 재인용)

초까지도 지속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19세기 분원공소(分院貢所)의 공인(貢人)이었던 지규식(池圭植, 1894-1910)이 쓴 생산에 관한 기록인 『하재일기(荷齋日記)』(1895-1904)를 살펴보면, 국장에 사용될 명기가 주문 생산된 기록이 남아 있어 이를 확인시켜준다. 『하재일기』에서 확인된 명기에 관한 기록은 1895년 처음으로 등장한다.



【그림 4】 영빈이씨 수경원 출토품



【그림 5】 정조 건릉 출토 명기 일괄

술단지 【甃】 3, 주준(酒樽) 4, 술병 1, 잔(잔대를 갖춘 것) 3, 작(爵) 1, 보(簋) 1, 궤(簠) 1, 밥사발 【飯鉢里】 1, 시접(匙櫛) 1, 찬접(饌櫛) 1, 소채·포·해(蔬菜脯醢) 접시 3, 향로(香爐) 1, 향합(香盒) 1, 경(磬) 1. 각 2건씩.
『荷齋日記』 4.15)

기록을 통해 지규식은 왕릉에 부장되는 14종 23점의 명기를 2벌 만들도록 주문받았고, 이를 같은 해 납품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관요가 민영화된 후에도 왕실에 필요한 물품이 분원을 통해 생산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내준다. 또한, 생산된 명기의 종류를 통해 19세기 왕릉에 부장되는 명기의 기종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기록은 1900년 뚝섬에서 광교(廣橋) 안중기(安重基, 미상)를 만나 명기의 제작을 의뢰하는 장면이다.

15) 『荷齋日記』 4 (1895-1896), 별록.

이른 새벽에 배를 출발하여 독섬【麤島】에 이르니 아침 해가 높이 솟았다. 그래서 하륙하여 광교(廣橋) 안중기(安重基) 주사 책방에 들러 안을 보고 안부 인사를 나누었다. 안이 말하기를 “국장도감(國葬都監)에서 지문(誌文)을 구워 바치라는 분부가 있었다. 지금 막 분원으로 내려가려는 즈음에 다행히 귀가(貴駕)를 뵈게 되었다.”고 하였다. 나는 즉시 종친부(宗親府) 국장도감으로 가서 수석 김[?] 주사를 만났다. [?]가 나를 인도하여 당상께 이르니 하교하기를, “지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지난번 것이 몇 조각인지 보아 즉시 국장도감에 가서 발기(件記)를 보고 값을 결정하라.”고 하고, 명기(明器) 2건도 또한 속히 구워 바치라고 하였다. 나는 지문과 명기 발기를 받아 가지고 광교에 이르러 바깥방에 맡겨 두었다.

『荷齋日記』 7.16

이를 통해 1900년에도 왕릉에는 지문(誌文)과 함께 명기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기록은 1902년 국장도감 삼방(三房)에서 천릉(遷陵)에 사용할 명기 등을 주문하기 위해 보낸 편지에 급히 답신을 보내는 내용이다. 지규식은 답신에 “먼저, 술통[酒樽] 5개, [?]잔(盞) 3좌(坐), 작(爵) 2개, 경(磬) 2개를 이중으로 봉하여 부송하고, 나머지 술단지[甕] 2개는 구워 내는 대로 올려 보내겠다.”고 하여,¹⁷⁾ 부장 도자에 앵과 주준, 잔, 작, 경을 포함한

16) 『荷齋日記』 7, 경자년(1900) 윤8월2일.

17) 『荷齋日記』 8, 임인년(1902) 9월12일. ‘아침을 먹은 뒤 건넌방을 바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밖에서 와서 나를 불렀다. 나가 보니 국장도감(國葬都監) 삼방(三房)에서 전인하여 편지를 보내왔다. 급히 뜯어보니 이르기를 “당상 대감이, 천릉지석(遷陵誌石)을 만들 것이니, 지 모(某)를 불러오라고 분부하셨다.”고 하였다. 편지가 도착하는 대로 즉시 밤을 새워 올라오라고 했다고 하례(下禮)가 서서 재촉하였다. 내가 스스로 생각해 보니 변주헌(卞柱憲)이 지금 서울에 있다. 즉시 변에게 편지를 써서 그에게 분부를 듣고 오라고 하고, 변관호를 불러 편지[書角]를 주고 가서 변주헌을 찾아보고 편지를 전하라고 신신 부탁하였다. 그리고 명기(明器) 중 술통[酒樽] 5개, [?]잔(盞) 3좌(坐), 작(爵) 2개, 경(磬) 2개를 이중으로 봉하여 부송하고, 나머지 술단지[甕] 2개는

명기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 소형의 백자 명기는 왕실을 중심으로 18세기는 물론, 20세기 초까지도 관요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소형 백자 명기의 조형 변화

본 절에서는 왕실 무덤에서 출토된 소형 백자 명기의 조형적 변화를 살펴 보기 위해 16세기 후반부터 19세기까지 꾸준히 부장된 기종인 앵, 무, 향로, 반발(飯鉢)과, 왕실과 관계된 인물의 무덤임을 나타내주는 보(簋)와 궤(簠)를 주목해보고자 한다.

(1) 앵, 무

앵과 무는 15세기부터 부장이 확인되고 있으나 소형의 백자 명기가 아닌 중형의 크기로 제작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도 6). 중형의 기물은 16세기 중반까지 사용되다가 16세기 중반 이후 전반적으로 소형화를 이룬 것으로 판단된다. 시기별 출토 사례가 부족하기는 하나, 굽의 형태와 기형적 변화가 시기성을 나타낸다고 판단되므로 그 변화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16세기에서 18세기 중반까지 제작된 앵과 무의 굽 형태는 오목굽으로 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것이 19세기를 전후하여 정교한 안굽의 형태로 변화되고, 19세기 이후에는 평저가 혼용된 것으로 보인다.



【도 6】 전성군(全城君, 1490~1505)묘 출토 앵과 무

구워 내는 대로 올려 보내겠다고 말하고, 노자[路費] 20냥을 주어 보냈다.’

기형의 변화는 뚜껑을 통해서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 17세기경 제작된 앵의 뚜껑은 연봉형 손잡이에 뚜껑의 상면과 주연부가 각이 진 형태로 제작되거나 18세기 중반 이후, 복발형에 내저면 드림새를 만들어 앵의 동체 구연부와 아귀를 맞출 수 있도록 변화한다. 18세기 중반경에는 뚜껑의 중앙부만 볼록하고 주변부가 전의 형태로 제작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당시 청으로부터 들어온 실용기의 형태를 모방했던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이후 건륭 출토품에 이르러 기고가 낮고 손잡이가 작은 형태로 변화한 뒤, 19세기 전반, 청원공주 묘 출토품에서는 손잡이 없이 편평한 형태의 뚜껑이 혼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리해보면, 16세기에서 17세기, 광천군묘와 전창군 합장묘(정휘옹주) 출토품은 민간 사대부 무덤 명기와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는데, 이는 왕과 왕세자의 무덤이 아닌 경우, 모두 일반 사대부묘의 형태로 부장하도록 한 의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소형 도자 명기는 동시기 광주 변천리 9호(1552-1558), 송정동 5호(1649-1654) 출토품 및 상림리 3호(1629-1640)와 기형적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어 왕실과 관계된 인물들의 무덤에 광주에서 제작한 백자가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18세기 중반을 전후하여 조성된 무덤의 경우, 태질과 유색, 성형 기술 등에서 모두 최상급의 백자 명기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형태적으로도 18세기 이전과는 다르게 18세기 후반 이후, 좀 더 실물에 가까운 형태로 정교해진 특징을 나타낸다. 이는 18세기 이후 사대부 무덤에서는 명기의 부장이 사라진 것과는 달리, 왕실과 관계된 무덤에서만 출토되고 있다는 점, 광주 분원리 B지구에서 출토된 앵의 뚜껑의 조형적 유사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광주산 백자 명기의 소비지가 왕실에 집중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표 6).

【표 6】 광천군묘·전창군 합장묘 출토 무(甗)·개(蓋)와 동일 기형의 관요 생산품

광천군묘 1591-1663	송정동5호 1552-1558	전창군(정휘옹주) 합장묘 1591-1663	송정동5호 1649-1654
			
전창군(정휘옹주) 합장묘 1591-1663	상림리3호 1629-1640	청연공주묘 1754-1821	분원리 B지구 1752-1883
			

(2) 향로, 반발

향로와 반발은 태안군묘와 전창군(유정량)묘, 영빈이씨의 수경원, 원빈홍씨의 원빈묘, 정조의 건릉 출토품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표 7).

【표 7】 왕실 능원묘 출토 앵(甕)·무(甗)의 기형적 특징

피장자	앵	무	굽/변조반침	도설
광천군 1510-1588			가는모래	 『국조오례의서례』
전창군 합장묘 (정휘옹주) 1591-1663			가는모래	 『국조상례보편』
화협옹주 1733-1752			오목굽/가는모래	

영빈이씨 1696-1764		 가는모래흔	
정조 1752-1800		 안굽/가는모래	 『춘관통고』 원의명기도설
청연공주 1754-1821		 굽,평저/가는모래	 『춘관통고』보편명 기도설

향로의 경우, 전기와 중기를 이끈 「오례(五禮)」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도설을 통해 두 귀와 삼족, 뚜껑에 구멍이 난 형태로 제작되도록 하였는데,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부장된 출토품은 이와 다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도설에 비해 간략화된 방식으로 제작되었으며, 이러한 형태는 영빈이씨 수경원이 조성된 18세기 전반까지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수경원에서 출토된 향로와 반발은 외형적으로 서로 유사하나 뚜껑에 통풍구의 유무를 통해 향로와 반발로 구분해볼 수 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부터는 태질과 유색, 조형적 특징에 있어 의도적인 조악함은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18세기 후반에 해당하는 원빈묘 출토품에서는 기형적 특징에서도 간략화된 형태를 찾아볼 수 없다. 향로의 정부와 두 귀의 제작, 복발형 뚜껑에 작은 원형의 손잡이는 전례 도설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정조의 건릉에서 정점을 이룬 것으로 보이는데, 의례의 원형을 복원하고자 『춘관통고(春官通考)』를 편찬하고, 도설에 맞게 형태를 그대로 모사했던 것이라 하겠다. 특히 이전까지 생략되었던 삼족의 표현을 위해 굽을 높게 제작하고 세 곳에 반원형 구멍을 뚫은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반발의 경우, 조선 전기 전례서인 「오례」와 『국조오례의』에서는 발과 뚜껑 모두 구연부가 수직에 가까운 직구의 형태를 띠도록 하였는데, 실제 일반 사대부묘 출토 사례에서는 구연부가 사선 방향으로 내경하며 좁아진 형태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까지 왕실에서 사용된 명기 반발 역시 이와 같은 형태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러한 조선 중기의 현실을 반영하여 후기에 편찬된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에는 반발의 동체 구연이 내만된 형태로 그려지는 변화를 보인다. 실제 출토 품에서도 이와 같은 형태의 반발이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발의 뚜껑은 운두가 낮은 복발형에서 운두가 깊은 방추형으로 변화되며, 손잡이는 크고 투박한 연봉형에서 작고 정교한 원형으로 이행된다.

하지만 향로와 반발은 생산지 출토 사례가 거의 확인되지 않아 생산지 출토품과의 직접 비교가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공반 출토된 식반류를 통해 16~17세기에 운영된 가마 출토품과 형태적 유사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광주 관요지 생산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3) 보, 궤

길례(吉禮)에 사용되는 기종인 보와 궤는 명기 도설에도 줄곧 다루어졌으나 실제 부장이 확인되는 사례는 18세기 이후 조성된 왕과 왕비, 왕세자 및 일부 후궁들의 무덤에 집중된다. 이렇게 출토된 보와 궤는 기형과 문양을 통해 시기별 변화 양상을 확인해 볼 수 있다(표 8).

【표 8】 왕실 능원묘 출토 보, 궤의 기형적 특징

피장자	簠	簋	문양	도설
의소세손 1661- 1722			파상문/파상문 +퇴문/+연주문	-
영빈이씨 1696- 1764			파상문	 『국조상례보편』
원빈홍씨 1766- 1779			파상직조문/파상문 +퇴문	-
정조 1752- 1800			파상직조문/파상문 +퇴문	 『국조오례통편서 례』

보는 방형의 동체 사면에 수면(獸面) 장식이 달려 있고, 궤는 타원형 동체 양측으로 손잡이가 달려있는 것이 특징이다. 출토품은 모두 18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문양적 특징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다만, 뚜껑에 그려진 음각문이 반원형의 중첩된 파상형을 띠던 것이 정조 건릉 출토품에서 직조 방식으로 그려진 직선형으로 변화한 것을 볼 수 있다. 기형의 변화는 굽의 형태에서 분명히 드러나는데, 18세기 전반에 제작된 의령원 출토 보는 각형 굽 네 모서리를 축으로 두고 이를 잇는 중앙부를 짧은 화형으로 연결하였다. 궤의 굽은 타원형으로 만들고 양측면 다리를 축으로 이어 중앙부를 화형으로 연결하였다. 그러나 건릉출토 보와 궤는 굽이 높고 넓어졌으며, 바닥면이 모두 화형으로 양각되어 전면이 지면에 닿도록 제작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높이와 너비의 비율이 정비례에 가깝게 변화하였으며, 보에 첩화된 수면문 장식도 전기에 비해 후기에는 점차 평면화되는 양상을 나타낸다.

보와 궤 또한 생산지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기종으로 극소량만을 생산하여 소비하였거나, 생산품 전량이 소비지로 이동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생산과 관련하여 지규식(池圭植, 1894~1910)이 쓴 『하재일기』를 통해 보와 궤를 포함한 백자 명기가 광주 분원에서 20세기 초까지 제작되었던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다.¹⁸⁾

2. 18세기 이후 왕실 소용 소형 백자 명기의 등장 배경

앞선 연구를 통해 왕실에서 사용된 소형 백자 명기의 소비 시기가 광주 관요의 생산 시기와 연대를 같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간 소형 백자 명기에 관한 연구에서는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 소형 백자 명기의 사용이 거의 사라진다고 보아왔으며, 최근 왕실에서의 사용이 주목되고 있으나, 그 성격에 대해서는 18세기 이후 왕과 대부·사·서인 간의 신분적 구분을 위한 개념적 해석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명기가 신분적 특수성을 나타낸다면 왕족을 제외한 신분에겐 명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가 있어야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조선 후·말기에 사용된 전례서(典禮書) 어디에도 그러한 제한 조치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조선 전기의 예를 기초로 왕 이하 대부·사·서인에게 기종의 구성과 수량에 차이를 나타내는 조항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이는 18세기를 기점으로 왕실과 사대부가 각기 다른 관점에서 의례를 수용하고 실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배경으로 조선 중기 이후, 적극적으로 수용된 주자학의 수용 과정을 주목해보고자 한다.

주자(朱子, 1130~1200)의 『가례(家禮)』는 태종대(太宗代)부터 조정의 주

18) 『荷齋日記』 4. “술단지[壘] 3, 주준(酒樽) 4, 술병 1, 잔(잔대를 갖춘 것) 3, 작(爵) 1, 보(簋) 1, 궤(簋) 1, 밥사발[飯鉢里] 1, 시접(匙櫛) 1, 찬접(饌櫛) 1, 소채·포·해(蔬菜脯醢) 접시 3, 향로(香爐) 1, 향합(香盒) 1, 경(磬) 1. 각 2건씩.”

도로 수입되어 간행되었고,¹⁹⁾ 세종대 경·대부·사의 의례를 『가례』에 의거하도록 하면서,²⁰⁾ 16세기 사대부들은 본격적으로 『가례』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성종 7(1476)년 중국을 다녀온 사은사(謝恩使) 정효상(鄭孝常, 1432~1481) 등이 『주자어류(朱子語類)』와 『주자대전(朱子大全)』등을 들여온 시점을 전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²¹⁾ 이로써 17세기 이후 예학의 중심이 된 『가례』는 서인(西人)이 주도한 정국 운영으로 학문의 주류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때 주자의 관점에서 의례의 실천을 조선에 맞게 변용하는데, 이를 따르는지 아닌지에 따라 견해가 달라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기존의 유학 서인 한당(漢唐) 의례를 따라 고례(古禮)의 방식으로 예제를 실천하느냐,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명기 의례를 생략하느냐에 따라 명기 부장 여부가 나누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실천 유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서인을 중심으로 한 사대부 계층은 18세기 이후, 명기의 부장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았으며, 영조대(英祖代) 이를 왕실에도 적용시켜 『국조상례보편』으로 정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왕을 사대부와 동일시하는 관점에 대한 반대급부로 사대부 계층과는 차별화된 의례를 시행하고자 한당의 의례인 고례를 따라 명기를 부장했던 것이라 판단된다.

19) 『太宗實錄』 6卷, 太宗3年 8月. “《주문공가례(朱文公家禮)》를 각사(各司)에 나누어 주었다. 《가례(家禮)》 1백 50부를 평양부(平壤府)에서 인쇄하여 반사(頒賜)한 것이다.”

20) 『世宗實錄』 23卷, 世宗6年 3月. “예관(禮官)에 명하여 《문공가례(文公家禮)》에 의하여 경사(卿士)와 서민(庶民)의 상제(喪祭)에 관한 예를 정하여 품위와 등급에 차이가 있게 하고, 의금(衣衾)과 기명(器皿)도 품수가 있게 하여 도식(圖式)을 진열해서 간이 하고 명백하게 하여, 아래로 우매한 백성들도 다 알기 쉽고 행할 수 있게 하면, 지난날 놀고 앉아서 먹던 무리들이 지금에는 다 호미를 들고 밭이랑에 나가는 백성이 될 것이며, 부처를 섬겨 앞날에 복을 빌던 무리들은 지금은 근본에 보답하고 먼 조상을 추모하는 사람으로 전환하여, 도(道)는 두 가지가 없고, 나라에는 다른 풍속이 없게 되며, 인심이 바르게 되고, 도학이 더욱 밝아, 세도(世道)가 순화할 것이니, (……).”

21) 『成宗實錄』 67卷, 成宗7年 5月. (장지영, 앞의 학위논문, 20203, 98쪽 재인용)

Ⅳ. 맺음말

본고에서는 18세기 이후 왕실에서 사용된 명기를 주목하여 왕실용 백자 명기의 특징과 그 사용 배경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광주 관요지에서 출토된 소형 백자 명기의 기종별 제작상의 특징을 분석하여 그 변화 양상을 파악해보았다. 그 결과, 광주 관요에서 생산된 소형 백자 명기는 적어도 1530년경부터 분원리 제작 시기인 19세기 까지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관련 기록을 통해 흥례에 사용된 도자 명기의 주문 생산이 20세기 초에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후 왕실 무덤 출토 명기를 분석하여 생산지와 소비 연대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부장품의 조형적 특징에서도 생산지 출토품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소형 백자 명기의 사용이 사대부 무덤에서는 17세기에 급감하여 18세기를 전후한 시점에 사라졌으나 18세기 중반 이후 왕의 측근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음을 생산지 출토 현황과 더불어 보다 명확히 밝힐 수 있었다.

이후 왕실 중심으로 18세기 이후 돌연 사용이 증가하게 된 배경을 서인이 주도한 주자학의 수용에 대한 반감으로 왕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대부와 차별화된 의례를 실천하고자 고례를 채택했던 것이라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그간 특정 시기에 국한되어 사대부묘를 중심으로 파악되어온 소형 백자 명기에 관한 연구 범위를 확장시켜 조선시대 전(全) 시기, 전 사용자 계층을 종합적으로 파악해보았다는 점과, 그간 왕실과 사대부 간에 이분법적으로 설명되어 온 유교 의례의 이원적 적용 실체를 구체화 시켰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조선시대 명기 부장 의례를 고고학적 연구 성과와 함께 미술사적 분석을 통해 사용계층의 변화 추이를 밝히고, 그 변화 요인을 문헌적 연구를 통해 입체적으로 해석해보았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문헌

『家禮』

『禮記』

『書儀』

『家禮集說』,

『朝鮮王朝實錄』

『世宗實錄』, 「五禮」

『國朝五禮儀』

『國朝喪禮補編』

『國朝五禮儀通編』

『春官通考』

池圭植, 『荷齋日記』 4

, 『荷齋日記』 7

, 『荷齋日記』 8

논문

구해인, 「충청남도 명기의 제작 양상과 특징」, 『조선시대 명기』, 국립공주박물관, 2019.

권소현, 「윤사신 부부 합장묘 출토 16세기 후반 백자묘지와 명기일괄」, 『미술자료』 Vol.- No.76, 국립중앙박물관, 2007.

김경중, 「16세기 중후반 조선관요 운영시기 빛 제작 양상 연구 -가마터 출토 명문백자를 중심으로-」, 『야외고고』 제15호,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 연회, 2012.

김래현, 「조선시대 도자 명기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김현우, 「조선시대 회곽묘의 편년과 변천 양상」, 『한국고고학보』 제85집, 2012.

송진옥, 「朝鮮王室의 明器 기록」,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이지현, 「조선시대 명기의 연구 : 백자명기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장남원, 「조선시대 喪葬공예품의 의미와 구성: 서울경기 지역 民墓埋納品을 중심으로」, 『미술사연구』 24, 2010.
- 장지영, 「朝鮮前期 漢陽 西郊地域 墳墓出土 陶磁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_____, 「조선전기 한양 서교지역의 분묘 출토 陶磁 연구 -진관동 분묘군 유적을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Vol.0 No.36, 한국중세사학회, 2013.
- _____, 「조선시대 漢陽 西郊지역의 邦墓 조성과 피장자 신분」, 『한국학논총』 Vol.39,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3.
- _____, 「조선시대 副葬 陶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3.
- _____, 「『명기(明器)』의 개념과 연원 고찰 -중국 삼대(三代)에서 송대(宋代)를 중심으로-」, 『한국학논총』 vol.60, 2023.
- _____, 「조선시대 도자 명기의 이원적 사용 양상과 분화 배경」, 『제66회 전국역사학대회 역사 속의 인구변동』 전국역사학대회 미술사부 발표문, 전국역사학대회협의회, 2023.10.
- _____, 「조선시대 왕실 무덤 출토 광주(廣州) 백자-소형 백자 명기(明器)를 중심으로」 『제11회 경기도자학술세미나 발표 자료집-조선 왕실에서의 광주 백자』, 경기도자박물관, 2024.
- _____, 「조선시대 도자(陶磁) 명기(明器) 기종 연구-왕실 능원묘(陵園墓) 출토품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46,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24.
- 전나나, 「조선 왕실 명기의 변천 명기에 대한-문헌과 출토품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제103호, 한국역사연구회, 2017.
- 최순권, 「조선시대 문헌에 나타난 명기」, 『조선시대 명기』, 국립공주박물관, 2019.
- 최지선, 「朝鮮時代 白磁 明器 研究」,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2.
- 최호림, 「우리나라 明器에 관한 一考察」,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8.

보고서

-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광주우산리9호조선백자요지 발굴조사보고」, 1993.
_____, 「광주번천리9호 조선백자요지」, 2007.
_____, 「조선의 마지막 관요 광주 분원리 백자요지」, 2006.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왕릉, 왕실의 영혼을 담다』, 2016.
국립문화재연구소, 「전 정조대왕 초장지 발굴조사 보고서」, 2015.
국립중앙박물관, 경기도박물관, 「경기도 광주중앙관요 요지 지표조사보고서」,
2000.
경기도자박물관, 「광주 송정동56호 백자가마터」, 2008.
_____, 「경기도자박물관 학술총서 제16책-광주 조선백자요지(사적
314호) 4차 발굴조사보고서」, 2019.
_____, 「경기도자박물관 학술총서 제17책-광주 조선백자요지(사적
314호) 3차 발굴조사보고서」, 2019.

사진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촬영 협조·직접 촬영
국립고궁박물관 제공
연세대학교박물관 제공

Abstract

CHARACTERISTICS AND CONTEXT OF USE OF SMALL-SCALE
WHITE PORCELAIN BURIAL VESSELS ‘*MYEONG-GI*(明器)’ FOR
THE ROYAL FAMILY IN THE LATE JOSEON DYNASTY

CHANG CHIYOUNG (CHANG, CHI YOUNG)

This study focuses on *myeong-gi* (明器, funerary vessels) used by the Joseon royal court after the 18th century, comparing those excavated from official kiln sites (*guan-yo*) with those used in royal contexts to identify changes in their form and patterns in the composition of vessel sets. It then explores how the increased use of royal white porcelain *myeong-gi*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reflects shifts in the practice of Confucian rituals and variations in the interpretation and reception of ritual norms.

To this end, the periods of production and stylistic development of small white porcelain *myeong-gi* unearthed from the official Gwangju kiln site were identified. These vessels were produced as early as the 1530s and continued to be produced through the 19th century. Records like the *Hajae-Ilgi* (荷齋日記, “Diary of Hajae”) indicate that such vessels continued to be custom-made in branch kilns into the early 20th century, even after the official kilns had been privatized.

The major stylistic changes observed pertained to the shapes of the vessels’ feet and whether fine sand or clay supports were used in firing. Early examples from the 1530s were generally well-crafted, with refined

forms and fine-sand firing. However, a noticeable shift can be observed from the mid-17th century toward coarser and intentionally crude wares until the 18th, when high-quality vessels with recessed foot rings and fine-sand firing reappeared, indicating a change in the social status of their users.

The contents of the royal tombs, one of the primary destinations for *guan-yo* wares, show strong correlations with official kiln products in both their periods of production and their formal characteristics. Contrary to earlier scholarship, which assumed that the use of small white porcelain *myeong-gi* declined sharply in the 17th century and disappeared by the 18th century, this study finds that their use in fact increased—particularly within royal contexts from the mid-18th century onward.

This trend is interpreted as a response to the increasing influence of Zhu Xi's *Family Rituals* (*Garye*, 家禮) under the political dominance of the Western faction (西人), under which these norms were observed even in royal ritual practices. In response, the court consciously adopted “ancient rites” (*gorye*, 古禮) to distinguish royal customs from those of the literati. As a result, small white porcelain *myeong-gi* produced by official kilns after the 18th century were predominantly produced for the tombs of the kings and their close relatives.

Key Words : Joseon Dynasty/Royal funerary practices/*Myeong-gi* (明器)/Official kilns (官窯)/White porcelain

